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 IC간 도로개설공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권선구 평동 구간 도로개설공사(현장소장 남광토건 김학원 소장)은 총 연장 3.8km 6차로 도로공사로서 지난 2004년 착공해 올해 5월 완공되는 공사로서 교량 4개소 및 평면교차로 3개소 등이 시공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수원역 주변 및 국도 42, 43호선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교통체증이 해소되며, 그간 낙후되었던 서수원권 개발촉진으로 동·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수원 민자 역사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이 구간은 친환경 도로건설이 시범 시행되는 구간으로 21세기 그린시티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위상 정립과 이미지 홍보 및 시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과 부합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명소화 도로를 조성하고 있어 여타 도시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친환경 도로건설 시범시행

● 보행자도로(성토 절토사면부)

- 보행자도로 전구간 가로수로 왕벚나무를 2열 식재하여 수목 터널을 조성 함으로써 명소화 거리로 조성함.
- 풍부한 녹지공간과 자연적 경관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보행자도로가 되도록 함.



보행자도로 조성단면도(성토사면부)



보행자도로 조성단면도(절토사면부)

● 솔교 조성계획

▶ 식재계획

- 솔교 좌·우측 50m구간의 상층부 교목은 소나무로 통일하여 솔교의 이미지를 최대화 함.
- 솔교 주변으로는 R10~R40의 낙락장송 및 소형 소나무를 식재함.
- 하층부식재는 철쭉류를 식재하여 계절의 변화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공사과장에게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남광토건 김학원 현장소장
- 하재근 전문위원에게 공사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김학원 현장소장(사진 좌로부터 김학원 소장, 하재근 전문위원, 임현정 책임감리원)

수원시청 최철규 도로과장이 말하는 수원시

수원은 유서 깊은 문화유적과 전통문화가 곳곳에 살아 숨 쉬는 효원의 도시입니다. 1789년 조선조 22대 정조 대왕이 부친 사도세자를 기리고 개혁정치를 펼치기 위해 새 읍치(邑治)로 정한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수원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지역적 입지적 특성을 살려 조성된 최초의 계획 신도시로서 팔달산을 배경으로 화성행궁과 화성이 건립되었고 특히, 화성은 동서양 성곽의 장점을 살려 축성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수원은 인구 107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도시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을 갈망하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에는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경쟁력과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문화산업의 콘텐츠는 전 분야에 걸쳐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술, 공연, 예술, 잡지는 물론 TV, 영화, 사진, 게임, 모바일 등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그 도시의 얼굴로서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감하는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있습

니다.

과거의 도로는 차량통행의 동맥역할을 하는 단순한 사고의 출발이었다면 현재, 미래의 도로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답고 쾌적한 인간 중심의 도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도로경관에 대한 가치설정과 관리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아직까지 변화보다는 관습적 사고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심각히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도시는 환경보전과 개발이 상생하는 계획이 전제되어 하나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내듯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창조해내듯 잘 다듬고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도시의 매력은 자연적인 것도 있으나 대부분 인위적 물리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으로서 도시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마케팅이란 도시라는 작품에 대하여 그 도시를 찾는 고객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도시공간의 환경적,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여 고객들에게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상업적 이윤이 아닌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50년, 100년 후의 수원시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고 만드느냐? 의 화두는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토목직공무원의 머리에 달려 있



○ (주)용마엔지니어링 임현정 책임감리원
 ○ 공사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는 명예감독관



으며 창조적 사고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 경쟁력에 달려있습니다. 잘 팔리는 도시상품을 만들고 제대로 판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이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화성과 함께 200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정체성이 확립된 도시로 수원을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를 새로운 문화의 시발점으로 무한한 가치창조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선진국의 도시환경시스템은 우리의 반복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도시도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도시를 찾게 되는 것은 그 도시만의 특별한 매력에 있고 존재이상의 가치가 있기에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열정과 욕망으로 변화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의로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수원시는 자체적으로 설계 추진기확단, 명예감독관,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계획과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 공법을 적극도입 추진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 품질과 기술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행환경개선 위한 통합 폴 설치,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축소위한 안내전광판 설치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방도로 정비사업 행자부 평가에서 2004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공무원은 대통령 표창, 기관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2005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수원시는 광역도로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의 원활한 품질과 안전한 현장관리, 주변 환경 피해방지 및 경쟁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 및 감리업체를 평가하고 표창하고 있다.

그간 공정, 품질, 안전, 기타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 세부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으로 평가를 실시해 2004년도에 도로사업 시공감리업체 평가 및 표창 시공, 감리업체 20개사 2005년도 12개사에 대해 시상하였다. 이러한 시상 효과로 공사현장의 공정, 품질, 안전 기타관리내용을 점검하고 현장 간 자율경쟁을 유도시킴과 상호보완 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어 결과적으로 전사업장의 철저한 공사 관리 및 완벽한 도로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다. 🌟